

# KIA 발야구, 허를 찌르다



KIA, 프로야구 개막전 키움에 7-5 역전승

이우성·김선빈 더블스틸... 황대인 땅볼 2타점  
크로우, 1피홈런 4자책점 '쑥스러운 데뷔승'

'호랑이 군단'이 뛰는 야구로 우승 고지를 향해 달린다.

KIA 타이거즈는 지난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키움 히어로즈를 상대로 2024시즌 개막전을 치렀다. 이 경기에서 KBO 데뷔전에 나선 새 외국인 투수 윌 크로우가 1회부터 키움 최주환에게 투런포를 맞았지만 경기는 7-5, KIA의 승리로 끝났다.

1회말 KIA가 뜨거운 방망이와 과감한 질주로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선두타자 박찬호가 행운의 2루타로 출루하면서 공격의 시작을 알렸다. KIA는 소크라테스의 안타, 최형우의 2루타에 이어 김선빈, 이우성까지 4 연속 안타 등으로 단숨에 3-2로 승부를 뒤집었다.

키움 선발 아리엘 후라도를 흔든 결정적인 한방은 주루에서 나왔다.

이어진 1사 1-2루에서 황대인의 타석이 돌아왔다. 그리고 초구에 2루 주자 김선빈과 1루 주자 이우성이 동시에 스타트를 끊어서 더블 스틸에 성공했다.

허를 찌르는 주루로 분위기를 끌어올린 KIA는 황대인의 3루 땅볼 때 3루에 있던 김선빈이 홈에 들어오면서 4-2를 만들었다. 여기에서 끝이 아니었다. 이우성까지 3루를 돌아 홈을 파고들면서 5-2까지 점수가 벌어졌다.

이우성이 득점에 성공하면서 황대인은 KBO리그 통산 역대 7번째이자 팀 2번째 '땅볼 2타점' 기록의 주인공이 됐다. 팀 첫 번째 기록은 2019년 9월 8일 박찬호가 기록했다. 이 당시에는 사실상 잘맞은 안타였지만, 1루 주자 오정환이 귀루를 하는 헤프닝 속에 '우의수 땅볼 2타점'이라는 기록이 만들어졌다.

더블스틸에 이은 2타점 땅볼을 지켜본 투수 이의

리는 "2타점 땅볼에 앞서 더블스틸 상황이 됐다. 투수 입장에서는 주자 나가고 집중해서 초구 변화구로 카운트 잡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뛰어버리면 멘탈이 나가게 된다"고 이야기했다.

KIA의 올 시즌 위력을 보여주는 이 장면은 '믿음'이 바탕이 돼 만들어졌다.

이범호 감독은 24일 "더블스틸의 경우 조재영 코치한테 그린라이트를 줬다. 그런 부분에서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흐름이 끊기면 안 되겠다 싶은 상황 말고는 뭘 수 있는 타이밍에 믿고 맡기겠다. 모든 분석을 끝내 놓은 상태니까 초구에 더블 스틸이 나올 수 있었다"고 조재영 코치에 대한 믿음을 보여줬다.

또 "시범경기 때는 역으로 선수들 안 뛰게 했다. 추우니까 부상 위험도 있고, 뛰는 걸 최소화했다"며 본격적인 KIA의 뛰는 야구를 예고했다.

사령탑의 신뢰 속에 뛰는 작전을 구사하고 있는 조재영 코치는 더블스틸 상황에 대해 "분석 미팅 때 이미 계획했던 것이다. 선빈이한테도 따로 투수의 습관 같은 걸 이야기해 줬다. 공교롭게도 초구에 그 습관이 나왔다. 우성에게도 선빈이 잘 보고 있다고 시그널을 줬다. 선빈이가 초구에 그 습관이 나왔을 때 과감하게 실행했다"며 "우리 벤치에서도 몰랐고, 상대팀에서도 몰랐다는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기분이 더 좋았다"고 말했다.

이어 "3년째 하면서 선수들과 신뢰 관계가 쌓이니까 내가 본 영상, 분석한 결과에 따라 과감하게 실행한다"며 "감독님도 저랑 2년 하면서 분석 미팅 때 계속 보고 하다 보니까 많이 신뢰하시는 것 같다. 그만큼 더 잘 준비해서 성공률 높이고, 좋은 장면 많이 나오게 준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우성의 득점 상황은 조재영 코치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무모한 질주"였지만 "공격적으로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영 코치는 "선빈이한테는 무조건 컨택해서 들어가라고 했었다. 홈 쪽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옆에서 우성이 가려는 게 느껴졌다. 홈에 들어갈 것 같아서 손을 뻗었는데 이미 지나갔다. 우성이 뛰는 게 슬로우 비디오 같이 느껴졌다(웃음)"며 "사



KIA 김선빈이 지난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과의 2024 프로야구 개막전에서 3루 도루에 성공하고 있다.

〈KIA 타이거즈 제공〉

면 많이 나오게 준비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우성의 득점 상황은 조재영 코치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무모한 질주"였지만 "공격적으로 뛰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재영 코치는 "선빈이한테는 무조건 컨택해서 들어가라고 했었다. 홈 쪽을 보고 있었는데 뭔가 옆에서 우성이 가려는 게 느껴졌다. 홈에 들어갈 것 같아서 손을 뻗었는데 이미 지나갔다. 우성이 뛰는 게 슬로우 비디오 같이 느껴졌다(웃음)"며 "사

실 타이밍 상으로는 런다운에 걸려야 하는 상황이어서 투아웃으로 착각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보고 있었다. 포수 김동현이 약간 홈베이스를 벗어나 있었다. 뭘 거라고 생각을 못했던 것 같다. 포수가 다른 곳을 보고 있으니 (1루수) 최주환이 홈을 던지려다가 바닥에 던진 것 같았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어 "다음 회에 우성이한테 아웃카운트 착각하지 않았냐고 물어봤다. 우성이 '그냥 뛰고 싶었어

요"라고 이야기했다. 다른 말은 안 하고 '올해 잘 풀리려고 하나 보다' 이렇게 말해줬다. 사실 무모하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 선수가 보이는 타구는 선수들이 판단을 많이 한다"며 "선수들에게 과감하게 판단하라고 한다. 내가 판단할 상황, 선수가 판단해야 하는 상황이 있다. 또 이미 가려고 마음 선수는 막기 쉽지 않다. 선수들이 계속 공격적으로 뭘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컨디션 좋은 '곽도규 카드' 통했다

이범호 감독 '첫 승' 승부처 6회초 2사

개막전에서 승리를 신고한 이범호 감독, 첫승 기록에서 가장 그를 고민하게 만든 지점은 '6회초 2사'였다.

KIA 타이거즈 이범호 감독은 지난 23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키움 히어로즈와의 개막전을 통해 만원관중 앞에서 사령탑으로 첫선을 보였다.

자신의 은퇴식이 열렸던 2019년 7월 13일 이후 첫 매진 사례를 이룬 챔피언스필드에서 이범호 감독은 승리의 세리머니를 했다.

1회 시작부터 선발 윌 크로우가 키움 최주환에게 투런포를 맞았지만 1회말 KIA가 대거 5점을 뽑아내면서 승부를 뒤집었다.

4회에는 최원준의 솔로포가 나오는 등 7-2로 앞선 6회, 크로우가 위기를 맞았다.

2사 1루에서 최주환에게 볼넷을 내준 크로우가 김휘집에게 우전안타를 맞으면서 실점했다. 우익수 송구 실책까지 겹치면서 7-4, 크로우가 김동현에게도 적시타를 내주자 결국 KIA 불펜이 가동됐다.



KIA의 선택은 2년 차 좌완 곽도규(사진)였다. 곽도규는 풀카운트 승부 끝에 송승문을 스탠딩 삼진으로 처리하면서 급한 불을 끄었다.

이후 KIA는 전상현-최지민-정해영을 순서대로 투입해 7-5, 2점 차 승리를 지켰다.

이범호 감독은 24일 "3점을 주고 곽도규를 올리는 타이밍이 가장 고민이 됐다. 그때 정재훈 코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도규를 쓰겠다고 하셨다. 최지민이 올라오기에는 빨랐고, 구위 자체로 봤을 때는 도규가 좋다고 하셔서 선택을 했다"며 "어제 경기를 하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을까 한다"고 밝

혔다.

이름이 아닌 컨디션으로 경기를 풀어가겠다고 언급했던 이범호 감독은 곽도규의 구위를 선택하면서 승리를 지켰고, 곽도규는 프로 첫 홀드를 수확했다.

경기가 끝난 뒤 이범호 감독은 선수들로부터 특별한 축하 인사를 받았다. 선수들은 첫승을 기념해 물세리머니를 준비했고, 이범호 감독은 시원한 물세례를 받았다. 팬들은 이범호 감독의 선수 시절 응원가를 열창하면서 첫승을 축하했다.

이범호 감독은 "이기는 게 이렇게 좋은 것이구나를 새삼 다시 느꼈다. 준비를 철저히 해서 잘해야겠다는 생각이다. 기본 좋으면서 그런 생각이 많이 들었다"며 "관중석이 가득 차서 경기하니까 즐겁고, 재미있었다. 선수들 플레이하는 게 내가 생각했던 대로 됐다. 개막에 맞춰 컨디션을 완벽하게 맞춰줬다는 생각이 들었다. 선수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했다.

한편 분위기를 이어 연승을 노리겠다는 KIA의 계획은 '봄비'에 막혔다. 24일 챔피언스필드에서 예정됐던 KIA와 키움의 시즌 2차전이 비로 취소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챔스필드 개막전 5년 만에 매진

전국 5곳 10만3841명 입장

2024 프로야구가 '5개 구장 매진'과 함께 뜨겁게 막을 열었다.

KBO리그가 23일 KIA 타이거즈와 키움 히어로즈가 열린 챔피언스필드 등 전국 5개 구장에서 일제히 개막했다.

이날 챔피언스필드의 2만 500석이 오후 1시 50분 모두 팔려나가면서 매진이 기록됐고, 류현진이 출전한 잠실(한화 이글스-LG 트윈스)에도 2만3750명의 관중이 입장해 만원사례를 이뤘다.

문학(롯데 자이언츠-SSG 랜더스-2만3000명), 창원(두산 베어스-NC 다이노스-1만7891명), 수원(삼성 라이온즈-KT 위즈-1만8700명) 관중석도 가득 차면서 2024시즌 첫날 전국 5개 구장에 총 10만3841명이 입장했다.

이는 역대 개막전 최대 관중 3위 기록이다. 역대 개막전 최대 관중 1위는 2019년 11만4021명, 2위는 지난해 10만5450명이다. 2년 연속 개막전 매진 기록도 만들어졌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챔피언스필드의 매진은 5년 만이다. 이범호 감독이 눈길 끄는 매진 기록의 중심에 섰다.

가장 최근 매진 경기는 2019년 7월 13일 한화전으로 이날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이범호 '선수'의 은퇴식이 열렸다. 그리고 이범호 '감독'으로 첫 경기를 치르는 날 챔피언스필드 관중석이 다시 만원 관중으로 채워졌다.

2014년 가장한 챔피언스필드에서는 세 차례 개막전 매진이 기록됐다. 가장 최근 개막전 매진은 2019년 3월 23일 LG전에서 만들어졌다.

정규시즌에 작성된 챔피언스필드 매진 기록은 이번이 29번째다.

앞서 2014년 6회, 2015년 2회, 2016년 2회, 2017년 10회, 2018년 6회, 2019년 2회 매진이 이뤄졌다.

한편 관중석의 뜨거운 분위기가 24일에도 이어지면서 잠실, 문학, 수원은 이를 연속 매진이 됐다.

챔피언스필드에는 전날 밤부터 비가 계속되면서 시즌 첫 우천취소가 기록됐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23일 오후 서울 잠실야구장에서 열린 한국프로야구 KBO리그 정규시즌 개막전 한화와 LG의 경기. 2회 말 한화 선발투수 류현진이 마운드에 올라와 있다. /연합뉴스

## 한화 류현진, 옛날 같지 않네

LG와 개막전서 3.2이닝 6피안타 5실점 2자책점 '패전'

'돌아온 몬스터' 류현진(한화 이글스)이 패배로 끝난 KBO리그 복귀전을 아쉬움 속에 복귀했다.

류현진은 24일 서울 잠실구장에서 취재진과 만나 "직구는 초반에 괜찮았는데 마지막 이닝에 가운 대로 몰렸고 변화구는 제구가 아쉬웠다"면서 "한 시즌의 첫 경기였기 때문에 시범경기와는 느낌이 달랐고 잘하고 싶은 마음도 있었다. 긴장했던 것 같다"고 돌아봤다.

그러면서 "예방주사 한 방 맞았다고 생각하고 다음 경기를 준비하겠다. 선발투수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전날 LG 트윈스와 치른 2024시즌 개막전에 선발 등판한 류현진은 제구 난조를 보이며 3.2이닝 6

피안타 3볼넷 5실점(2자책점) 했다.

총 86개의 공을 던진 가운데 직구(45개), 커브(18개), 체인지업(14개), 컷패스트볼(9개)을 섞어 던졌다. 직구 최고 구속은 150km를 찍었다.

류현진은 "투수는 아무리 컨디션이 좋아도 제구가 중요하던 것을 어제 다시 한번 느꼈다. 구속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서 "구속이 시속 140km대 초반이 나와도 제구가 되면 더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류현진은 투구 수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했다. 조금씩 줄여야 한다"고 말했다.

역대 개막전 성적이 좋지 못했던 이력에 대해선 "그건 잘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위한 삼야할 정

도다"라면서 머쓱하게 웃어 보였다.

류현진은 과거 시즌 개막전에 5차례 등판했는데 26.1이닝 19실점(17자책)을 기록했다.

전날 자신을 응원해준 팬들과 선배 에우를 해준 LG 선수들에 대해선 "많은 팬이 제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짜릿했다"면서 "경기를 시작할 때 상대 선수들이 더그아웃 앞에 나와줬는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최원준은 "원래 류현진은 구종과 코스를 다양하게 던지는 스타일인데 어제는 패스트볼을 좌타자 몸쪽으로 많이 던졌고 결정구도 빠른 템포의 직구로 많이 가져갔다"며 "전력 분석을 통해 타자 성향을 본 뒤 역으로 갔던 것인데 조금 아쉬가 되지 않았나 본다"고 말했다.

최 감독은 "현진도 한국에 돌아오고 첫 경기여서 세계 던졌는데 조금 안 좋게 작용한 것 같다"면서 "(류현진에게) '이제 한 경기 했고 143경기 남았으니가 편하게 하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